

“16~20세기 아시아문화 엿보는 국제 플랫폼”

ACC, 첫 공개 수장고 가보니

유네스코·실�크로드 유산 등
서·남아시아 유물 수집 박차
복합공간 ‘창제작센터’ 눈길

아시아 전역의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보고(寶庫)’가 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공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수장고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단순히 ‘전시의 공간’을 넘어 ‘생산과 보존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취지에서다.

15일 찾은 광주광역시 동구 ACC 현장. 문화정보원 지하 4층에 자리한 수장고에 들어서자, 아시아문화박물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한 집약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총 1만9017점에 이르는 소장품들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수집된 유물들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전역에서 건너온 생활문화품으로 구성됐다.

이곳에 보관된 인도네시아 무카무카무 컬렉션(6323점), 누산타라 컬렉션(1만 2258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관련 유물(377점) 등은 향후 10년은 거뜰히 ACC 전시를 책임질 자산으로 손색이 없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틱, 크리스(전통 단검), 와양인형을 비롯해, 17세기에 제작된 고가구 벤치 같은 진귀한 유물들까지 눈길을 사로잡았다. ACC의 국제 네트워크 성과를 실로 체감케 한 내용물들이었다.

수장고가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카이브이자 연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ACC는 현재 상대적으로 소장품이 부족한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물 수집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30일에는 중앙아시아실을 새로 개관해, 실�크로드의 역사와 정서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ACC에서는 수장고 외에도 창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지하 4층에 자리한 수장고에서는 아시아 전역에서 수집한 소장품들을 엿볼 수 있다. ACC 제공

작센터가 함께 공개됐다. 이곳은 약 1000평 규모로 영상·음향·공예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창작 인프라가 집약된 복합 공간이었다.

입체음향제작실은 VR 콘텐츠와 대형 영화 제작에 활용되는 수준의 음향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갖췄으며,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독자적 제작 환경을 자랑한다.

입체영상제작실은 게임 캐릭터 개발과 미디어아트 제작에 활용되는 시설로, 최근 미디어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밖에도 용접실과 도색실 등이 완비됐고, 레지던스 작가들이 상주하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한편 ACC는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은 유물들을 보존·복원해 나가며, 고대 문화재 중심의 타 박물관과는 차별화된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 부설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237㎡ 규모의 제2 수장고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소장품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개관 10주년인 올해, 이제야 첫발을 댄 기분”이라며 “10년 후에는 아시아 최고 문화복합센터를 넘어, 세계 시민들과 아시아 문화를 함께 나누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기 기자 chan.park@jnilbo.com

신체극 ‘프랑켄슈타인’ 배우 모집

광주예술의전당, 27일까지 접수

광주예술의전당이 국립극단과 공동제작하는 신체극 ‘프랑켄슈타인’의 배우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15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프랑켄슈타인’ (가제)은 오는 12월4~7일 소극장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사업’에 선정돼 서울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예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은 19세기 천재 여성 작가로 평가받는 메리 셸리가 19살에 쓰기 시작해 21살에 완성한 과학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남궁호 연출이 재창작했으며, 배우의 몸짓언어와 움직임이 그리는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소통과 무대 효과가 극의 주축을 담당하는 피지컬 씨어터, 언버벌 신체극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남궁호 연출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 마르셀마르소 국제 마임학교를 졸업하고 마임을 주축으로 하는 호모루덴스컴

퍼니의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다. 언버벌(Non-verbal·비언어극), 움직임 공연에 특화된 그는 텍스트 중심의 희곡이 가진 구조를 파괴하면서도 희곡이 가진 언어를 배우의 신체에 뚜렷이 담아낸다.

출연할 배우는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공연일 기준 19세 이상, 40세 미만 성인에 한하며, 기초체력이 탄탄하고 마임·아크로바틱·광대극·무용 등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 공연에 1작품 이상의 출연 경험이 필요하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실연심사와 추후 그룹 오디션을 거친 후 18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에서 광주지역 출신 배우에게는 우대 자격이 주어진다. 오디션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이거나, 광주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중 1곳을 졸업하면 우대 자격에 해당한다.

오디션 지원은 국립극단 접수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추후 국립극단 및 접수 전용 누리집과 지원자 개별 연락처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기

삶다, ‘혼자서 견디는 당신에게’ 출판 북토크 개최

19일 오후 3시...황서희 작가 초청 불안·고민 담은 청소년 에세이집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다)는 자립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황서희(23) 작가의 10대 시절 경험을 담은 책 ‘혼자서 견디는 당신에게’ 출판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3시 삶다 2층 열린책방에서 북토크를 진행한다.

이번 북토크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작가는 청소년기에 직접 겪었던 진로에 대한 압박, 포래와 다른 자신을 바라보며 겪은 심리적 불안 등 자신의 진솔한 고민을 나눈다. 나아가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낸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찬기



황 작가는 “학교를 그만둔 뒤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길게는 3개월 동안 밖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당시 진로·관계 등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글로 쓰며 이겨냈고,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작가가 쓴 문장과 사진을 활용해 만든 기념엽서를 참여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1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224-0542)나 인스타그램(@mysamdi)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

ACC-광주예술고 협력 전시 ‘잇-다’ 성료

“세계적 예술가 성장 토대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광주예술고등학교가 함께 진행한 협력 전시 ‘잇-다’가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ACC가 추진 중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예비 예술인 발굴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전시는 지난달 17일부터 ACC 문화정보원 내 대나무정원에서 열렸다. ‘전통과 현대를 잇다’를 주제로, 광주예술고 한 국화과 1~3학년 학생 69명이 참여해 약 5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ACC가 올해 처음 시도한 청소년문화예술 협력사업으로, 지역 예술고와 국립 문화기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총 6194명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관람객들의 호응도 컸다. 특히 유혜진(3학년) 학생의 작품 ‘청사요연(靑紗妖妍)’은 푸른 뱀에 휩싸인 여성의 형상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이번 전시의 주제를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안동의 복합문화공간 ‘갤러리이웃’ 관계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며 “한국화가 회화뿐 아니라 설치



ACC와 광주예술고 협력 전시 ‘잇-다’가 지난 13일 막을 내린 가운데 ACC가 예비 예술인 발굴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ACC 제공

예술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ACC가 지속적으로 청소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소희(1학년) 학생은 “처음으로 교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전시하게 돼 색다른 경험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대군 광주예술고 교감은 “한국화는 민족의 정서와 미학이 담긴 중요한 전통예술”이라며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 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예술적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는 문화정보원 내 대나무정원을 지역 예술가와 동호회, 예비 예술인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어반스케이프&드로잉 협력 전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오는 10~12월에는 호남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학과와의 졸업 전시 릴레이가 이어진다. 김성수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런치토크 강좌’로 호남 남종화 세계 다룬다

오는 30일 미술관 세미나실서 조송식 조선대 명예교수 초청

광주시립미술관은 남도 한국화 명작전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 전시와 연계한 런치토크 강좌를 오는 30일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15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런치토크 강좌는 동양화론과 한국 회화사의 권위자인 조송식(사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남종화와 호남 전통 남종화 거장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조 명예교수는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2년간 동양화론을 배웠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양화론에 관해 역사적 맥락에서 체계성을 세웠으며, 한문으로 된 동양화론을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강좌 주제는 ‘세한도의 황한(荒寒) 산수와 호남 남종화 세계’로 남도 한국화 명화전 주제에 맞춰 세한도를 중심으로 한 남종 문인화의 세계와 호남 남종화를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17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까지 접수를 받으며 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613-7107 또는 062-613-712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